



올해 일본기업 해외자산 인수규모 사상최대 예상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올해 일본 기업의 해외자산 인수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- 일본기업이 발표한 해외자산 인수규모는 총 634억 달러로 최근 소프트뱅크(SOFTBANK CORP.)의 스프린트 넥스텔(Sprint Nextel Corporation) 인수를 더하면 지금까지의 인수 총액은 835억 달러로 늘어남.
 - 이는 사상 최대 해외자산 인수가 이뤄졌던 지난해 88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, 해외자산 인수를 모색하는 일본 기업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됨.
- 극심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엔화 강세를 활용하여 해외자산 인수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임.

■ 지난 15일 일본 3위 이동통신업체인 소프트뱅크가 미국 3위 이동통신업체인 스프린트 넥스텔의 지분 70%를 201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는데, 이는 일본기업의 해외 M&A 역사상 최대 규모임.¹⁾

- 지금까지 역대 최대기록은 2007년 일본담배가 영국의 껄러히 그룹을 인수하면서 투자했던 190억 2,000만 달러였음.
 - 여기에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라쿠텐이 2020년까지 해외거래 비중을 70%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일본기업의 해외자산 인수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임.
- 전문가들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엔화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성장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힘.

(WSJ 외, 10/15)

1) 201억 달러는 스프린트 주주에게 제공될 121억 달러 현금증자와 스프린트의 대차대조표를 강화하기 위한 80억 달러의 신규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.